

국민 82% “집값 안떨어질 것”...구입의향 집값 평균 3.3억원

1년 뒤 집값 “지금과 비슷” 54.8% “현재보다 상승” 27.3%...상승 전망 11.4%p ↑ “정부, 공공임대 주택 확대해야” 40.7%...“내집마련 공적지원 확대해야” 30.5%



40대 60.9%, 50대 62.8%, 60대 이상 65.0%로 조사됐다. 소득별로는 ‘월 201만원 미만’ 59.4%, ‘월 201만원 이상~331만원 미만’ 61.2%, ‘월 331만원 이상~431만원 미만’ 62.5%, ‘월 431만원 이상~541만원 미만’ 62.0%, ‘월 541만원 이상’ 65.7%로 나타나 연령과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주택소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 확대’란 응답이 40.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내집 마련을 위한 공적지원 확대’ 30.5%, ‘임대차시장 안정성 강화’ 18.2%, ‘모르겠다’ 10.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일반가구의 경우 방문 면접조사, 보름자리론 이용가구의 경우 전화 면접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일반가구는 95% 신뢰수준에서 ±1.4%포인트, 보름자리론 이용가구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국민 10명 중 8명은 1년 뒤 우리나라 집값이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지난해 8월13일~10월28일 전국 일반가구(만 20세 이상 가구주) 5000가구와 보금자리론을 이용 중인 200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주금공에 따르면 1년 후 우리나라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54.8%, ‘현재보다 상승할 것’이란 응답이 27.3%로 나타났다.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란 응답은 17.8%에 그쳤다. 응답자의 82.1%는 1년 뒤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셈이다. 특히 전년도 같은 기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현재보다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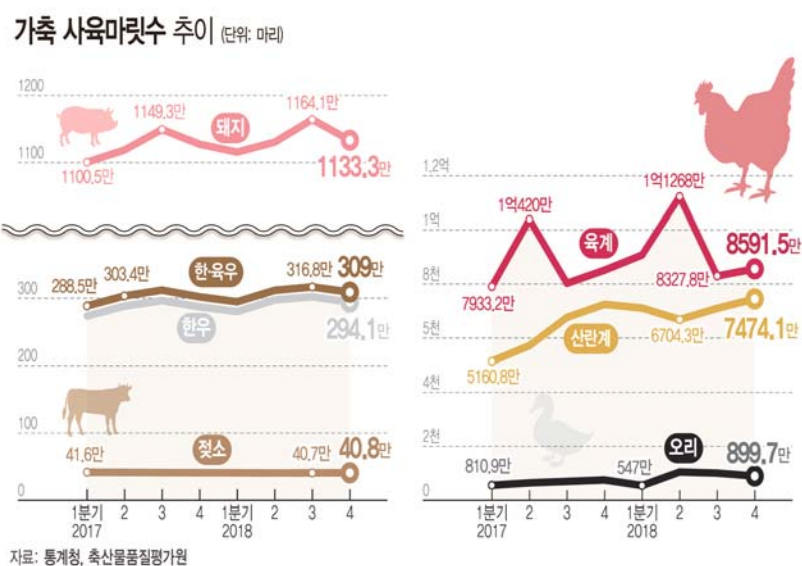
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1.1%포인트 증가에 그친 반면 ‘현재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은 11.4%포인트나 늘었다. 이는 응답자들이 지난해 집값 폭등을 경험하면서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게 된 경향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서울·경기 거주, 40대 이하, 무주택, 높은 소득 수준 등일수록 주택가격 상승을 점치는 응답이 많았다. 향후 주택구입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일반가구 5000가구 중 29.2%가 ‘구입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도 31.9%보다 2.7%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일반가구 중에서 무주택자(1909가구)의 50.7%는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 41.7%, 경기

35.3%, 광역시 25.4%, 기타지역 20.0% 순이며 가구주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가구가 가장 높았다.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들이 선호한 주택가격은 평균 3억3161만원으로 조사됐다. 구간별로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이 41.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26.0%,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18.7%, ‘8억원 이상’ 11.3%, ‘1억원 미만’ 2.2% 등의 순이었다.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구입의향 주택가격을 3억원 이상으로 응답한 가구가 44.8%에서 53.2%로 8.4%포인트 높아졌는데 이 역시 지난해 급등한 집값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주택 구입 의향이 없다는 가구 중에서도 ‘현재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 마련이나 대출

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유주택(2699가구) 가구 중에서는 56.3%가, 무주택(940가구) 중에서는 54.9%가 이같은 이유를 꼽았다. 뒤를 이어 유주택 가구에서는 ‘주택 구입 외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나은 것’이라는 응답이 20.5%, 무주택 가구 중에서는 ‘반드시 내집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라는 응답이 22.5%로 나타났다. 주택 구입 의향이 없는 이유로 향후에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란 응답의 비중은 유주택 가구 13.0%, 무주택 가구 7.4%밖에 그쳤다. 주택소유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일반가구 5000가구 중 62.1%가 ‘실제 거주할 목적의 1가구 1주택은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59.0%

‘저출산’ 젖소만 사육 감소... 다른 가축은 다 늘어

통계청, 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주소비층 유아 인구 감소에 ‘원유 감산정책’ 계속



지난해 닭, 돼지, 한우 등 전반적인 가축 사육은 다 늘어났는데 유일하게 젖소 사육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17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젖소는 40만

8000마리로 0.2%(1000마리) 줄어 전 가축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이 숫자는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배경엔 저출산 문제가 있다. 우유를 주로 먹는 유·아동 인구가 급감하면서 수급 불균형 문제가 나타

난 것이다. 정부는 2014년 말부터 젖소 도태사업을 포함한 원유 감산 정책을 펴왔다. 이 영향으로 1세 미만 젖소 마릿수가 줄어들고 있다. 한우·육우는 309만 마리로 2.3%(7만 마리) 늘었다. 한우 산지 가격 호조로 비육우 마릿 수는 증가한 데 반해 도축 마릿 수는 줄어든 탓이었다. 산란계(알 낳는 닭)는 1년 전보다 2.8%(203만 마리) 늘어난 7474만 1000마리로 집계됐다. 육계(식용닭)는 8591만5000마리로 1년 전보다 0.6%(48만 마리) 늘었다. 돼지 수는 1133만3000마리로 0.5%(6만 마리) 늘었다. 최근 산지 가격 호조에 따라 모돈 수가 늘어 나면서 돼지 생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사육 중인 오리는 899만7000마리였다. AI 피해가 잠잠해지면서 1년 전보다 19.5%(146만 6000마리) 증가했다.

뉴시스

기아차 쏘울 ‘美 현지생산’ 보도는 루머

“광주공장 생산 지속”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대표적인 생산 모델인 쏘울이 미국 현지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한 언론 매체에 따르면 ‘기아자동차가 미국 수출 흥행보증수표인 쏘울 일부 물량을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기아차가 해외에서 첫 생산할 쏘울 모델은 북미 전용 2.0 휘발유 엔진 모델이며, 연간 생산 규모는 6만여대로 올해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에 돌입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쏘울 일부 물량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면서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보도가 이뤄졌는지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쏘울은 중국 현지 일부 물량을 제외하고, 해외 수출물

량과 내수 판매 물량 모두 광주공장에서 계속해서 생산된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오는 28일 광주공장에서 3세대 풀체인지 모델 ‘쏘울 부스터’를 본격적으로 양산·출시한다. 이에 따른 연간 생산계획 등도 이미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미 지역 인기 수출 모델인 쏘울은 전량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 쏘울은 2017년 기준 국내에서 16만5508대가 생산된 가운데 15만 7561대(95%)가 해외로 수출됐다. 이중 미국 수출물량이 66.2%를 차지할 만큼 단일 생산 차종 가운데 미국 수출 비중이 높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발효를 통해 수입자동차에 대해 최대 25%의 고율관세 부과를 검토하면서 수출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고율관세가 현실화 될 경우 기아차를 비롯해 국내 완성차 업체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한편 기아차는 ‘쏘울 부스터’ 출시를 앞두고 지난 14일부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사전계약을 시작했다.

김정환 기자

전남도, 농수특산물 온·오프 특판행사

총 284개 품목 10~40% 할인

전남도는 설 대목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농수특산물 온오프라인 특판 행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도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는 한우, 전복, 굴비, 한과 등 총 284개 품목에 대해 10~40% 할인행사를 한다. 1만~2만 원대의 알뜰 선물세트부터 식표명인 제품, 도지·사품질 인증 제품 등 8만~9만 원대의 품격 있는 프리미엄 선물세트까지 다양하게 출시해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대도시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도 운영한다. 24일부터 30일까지 농협 하나포스트 성남점과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0단지에서 전남지역 60여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지역 농수특산물 판촉활동을 벌여 수도권 소비자 입맛을 공략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전남 농수특산물 우수브랜드 홍보책자를 제작해 전경련 회원사, 전국 기업체, 호텔, 출항인사, 전통시장 KTX 역사 등 총 2천900여 개소에 400 부를 배부했다.

입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신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